http://dx.doi.org/10.14774/JKIID.2014.23.3.075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terior Design
Vol.23 No.3 Serial No.104 _ 2014. 06

알바루 시자의 건축에 나타난 현상학적 건축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henomenological Characteristics of Alvaro Siza's Design

Author
김준성 Kim, Jun-Sung / 정회원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건축설계학과 교수
정태용 Chung, Tae-Yong/ 정회원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건축설계학과 교수, 공학박사*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review phenomenological characteristics in Alvaro Siza's works through his design intention, methods and results. As a Portuguese architect, his personal and local background as well as pursuing the essence of architecture made phenomenological characteristics of his works. The emphasis of the placeness of site and the existence of architecture has close relationship with Heidegger's concept of dwelling and the role of architecture. Although Siza has maintained white plat plane of interior space which is one of features of modern architecture, he provides dramatic and dynamic experiences of space using curved and acute angle of plane in his latter part of works. Another his phenomenological nature of buildings is a striking display of space and light which is remarkable especially in his museum designs. He made this character in adopting various shapes of double ceilings, openings and their combination with natural light which he always emphasizes. As a result, Alvaro Siza's phenomenological characteristics comes not from clear architectural or philosophical theory but from continuous practice based on pursuing the essence of architecture.

Keywords
현상학적 건축, 장소, 공간, 빛, 체험
Phenomenological Architecture, Place, Space, Lig ht, Body Experience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알바루 시자는 이 시대 마지막 남은 모더니즘 건축의 거장으로 일컬어지고 있으나, 정작 그의 건축에 대한 국내 연구는 많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시자의 국내 작업[1]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이전보다 그의 건축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다.

시자의 건축은 근대건축의 배경 하에, 유럽의 변방인 포르투갈의 지역적 특성과 공간과 빛에 대한 개인적 관심을 통해 형성되었는데, 급변하는 현대 건축의 사조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건축을 추구하여 스스로의 고유한 건축특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특히 표피적이고 가벼움 중심의 현재의 건축 경향에 대해, 건축의 본질을 추구하고 그 체험을 중시했다는 점에서 건축의 기본에 충실한 건축가로 인식되고 있다. 그의 건축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며 개념적인 건축에서는 찾기 어려운 감동과 체험을 제공한다. 시자에 대한 그동안의 평가는 시기별로 차이는 있으나 근대적 문맥주의자, 미니멀리스트, 모더니즘 건축가로 분류되고 있다. 그런데, 자신의 건축 개념을 빛과 재료의 물성을 통해 극적인 체험으로 구현한다는 점에서 그의 건축은 지극히 현상학적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국내 연구는 아직 미진한 실정이다.[2]

본 연구는 '알바루 시자의 건축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라는 전제 하에, 그 특성의 구체적 내용, 배경 및 전개상황을 고찰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알바루 시자의 건축이 의도하는 바,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법과 효과를 고찰하여 시자의 건축이 갖고 있는 특성이 현상학적임을 밝히는 것이다.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taeyong@konkuk.ac.kr
** 이 논문은 2013년도 건국대학교 학술진흥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1) 안양 파빌리온(2005-06), 미메시스 박물관(2008-2013), 아모레 패시픽 연구소(2008-10), 아모레 게스트 하우스(2008-2010) 등이 있다.
2) 알바루 시자를 직접 다룬 기존 국내 연구로는 '곽승, 김현섭, 알바로 시자의 아베이로 도서관에 나타난 빛에 대한 연구, 건축학회 논문집, 2010.11'이 있고, 알토와의 관계를 다룬 '김현섭, 곽승, 알바알토 유산의 현대적 차용과 변형에 관한 연구, 건축학회논문집 2011. 11' 및 기타 학술발표대회 논문 등이 있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연구의 범위는 알바루 시자의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작업 모두를 대상으로 하나 그의 작업이 장기간에 걸쳐 다양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연구 편의상 전시시설에 중심을 두어 진행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우선 현상학과 관련된 건축 이론가들과 특히 현상학을 기반으로 작업하는 건축가들의 견해를 중심으로 그들의 주장과 내용을 정리하는데, 이는 시자 건축이 보여주는 현상학적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틀을 만들기 위함이다. 문헌 조사를 통하여 건축가의 사고와 작업에 관련된 인문적 사항과 선행 작업을 분석하며 이를 통하여 그의 건축에 영향을 끼친 배경을 살펴본다.

다른 한편으로는 현상학적 건축에 대한 시자의 사고를 정리하기 위해 우선 현상학적 건축과 관련된 그의 저작 및 대화 내용을 살펴보고, 이들과 실제 작업과의 관계에 주목한다. 또한 초기부터 현재까지 알바루 시자의 다양한 작품을 분석틀의 항목에 의거하여 검토함으로써 어떠한 방식으로 자신의 방법을 발전시켜왔는지 고찰한다. 이후 실제 건물에 나타난 현상학적 특성을 건축가의 디자인 의도와 건물의 컨텍스트 등을 고려하여 살펴본다.

실제 작업에 나타난 현상학적 건축 특성은 도면과 사진자료를 사용하고 건물의 형태 및 공간구성에 주의하여 알아본다. 더 나아가 이들의 상호 비교를 통하여 현상학적 접근방식의 내용과 변화 추이 그리고 그 이유를 고찰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시자의 건축에 있어서 현상학적 특성이 갖는 가치와 의의 및 그 한계에 대해서도 고찰하도록 한다.

2. 시자의 현상학적 건축 분석틀

2.1. 현상학적 건축의 내용

현상학은 일반적으로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감각적 경험을 중시한다.[3] 이는 실증 과학의 목적인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당연시되었던 주관적 경험으로 되돌아가서, '사물 자체'를 중시하고, 현상의 가치와 의미를 경험에 둔다는 입장이다.

현상학적 건축은 건축의 문제를 본질의 차원에서 발견하고 이를 이미지와 디테일을 통해 적절하게 드러내어 체험시키는 '방식'이자 '접근'이다.[4] 그런데, 건축에서 현상학적 사고는 대부분 하이데거와 메를로-퐁티의 현상학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하이데거는 특히 거주와 짓기 행위에 관련된 존재의 본질에 대한 언어 및 철학적 탐구로 건축의 존재에 대한 기반을 제공하였고, 이는 대지, 장소, 물성 등의 강조를 통해 건축에 적용되었다. 노베르크-슐츠는 하이데거의 현상학을 바탕으로 건축의 존재를 재조명하는 동시에 장소성 이론을 제시한 대표적 인물이다. 하이데거의 거주, 장소, 공간에 대한 생각이 건축적 주제에 대해 존재론적 성격인 반면, 메를로-퐁티의 지각, 신체, 감각에 대한 생각은 건축에 명확하고 실무적인 성격을 제공한다.[5] 스티븐 홀은 메를로-퐁티의 현상학 이론을 근거로, '다중시점, 현상학적 렌즈로서의 물, 밤의 공간성, 색채의 적극적 사용 등' 현상학적 디자인 방법을 만들고 이를 발전시켰다.

이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현상학적 건축 이론가와 건축가의 주장은 직간접적으로 하이데거 및 메를로-퐁티의 현상학적 사유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들의 현상학적 건축에 관련된 주장과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현상학 관련 주요 건축가와 현상학적 건축 내용

	현상학적 건축 관련 철학자와 주요 주장
노베르크슐츠	하이데거, 건축의 존재, 본질, 대지에 대한 장소성 강조 Existence, Space and Architecture(1971), Genius Loci(1991),
후아니 팔라스마	메를로-퐁티, 다감각에 의한 체험하는 건축 강조, The Eyes of the Skin(1995), The Architecture of Image(2001), The Thinking Hand(2009), Encounters1,2(2005, 2012),
스티븐홀	메를로-퐁티, 현상학적 건축의 주요 개념, 실천방법 정립 Anchoring(1989), Questions of Perception(1994), Interwining(1996), Parallax(2000), Porosity and Luminosity(2002)
페테르춤터	하이데거, 거주 개념으로서의 건축, 건축의 본질 강조 Thinking Architecture(1997), Atmosphere(2006)
안도타다오	하이데거, 메를로-퐁티, 장소성, 신타이(신체)의 경험 강조. The Colors of Light(1996), Architecture and Spirit(1999)

2.2. 시자의 현상학적 건축을 위한 분석틀

알바루 시자는 현상학을 비롯한 별도의 건축이론을 전면에 내세우는 대신, 건축의 주요 고려 사항인 대지, 프로그램, 형태, 공간화 등의 문제를 실무자의 입장에서 접근한다. 현상학적 접근을 보여주는 다른 건축가들에 비해 많은 저작물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저술을 근거로 그의 건축에 대한 분석틀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시자의 건축을 '인식과 실천'이라는 2가지 단계로 구분하여 접근한다. 인식 부분은, 작업과 관련된 인터뷰, 책자 등 매체를 통해 현상학과 관련된 그의 생각을 살펴보는 것이다.

실천 부분은 실제 작업을 중심으로, 현상학적 건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건축적 체험에 초점을 맞추고, 이에 따라 체험의 기반이 되는 대지, 체험의 중심 사항인 신체의 2부분으로 대별한다. 그리고 신체는 감각과 움직임으로 다시 나눈다. 신체의 감각 측면은 빛과 색채의 효과와 의미를 중심으로 하는 시각 부분과 촉각, 소리

3) Taylor Stone, Think About Thinking About Light: A Phenomenological Investigation of Lighting in Built Environments, York University, Ontario, Canada. July 26, 2011, p.16

4) Mohammadreza Shirazi, Architectural Theory and Practice, and the Question of Phenomenology, Brandenburgischen Technischen Universität, 2009, p.4

5) Ibid., p.156

등 비시각적 부분으로, 신체의 움직임은 공간의 방향과 깊이 측면과 운동에 따른 시점의 변이 및 동선이 갖는 공간 경험의 측면을 중심으로 알아본다. 여기에 각 항목에 대한 시자의 인식을 알아보고, 다시 이러한 사항들이 실천 즉 작업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고찰함으로써 그의 건축이 보여주는 현상학적 특성을 밝혀내고자 한다.

<표 2> 시자 건축의 현상학적 특성 분석을 위한 틀

내용		주요관련 사항
대지	인식	대지에 대한 건축가의 현상학적 관점
	실천	주변 환경(도시, 자연)과의 관계, 지형 등과 체험 건축적 경험으로서의 대지에 대한 해석과 건축으로의 반영
감각	인식	감각에 대한 건축가의 현상학적 인식
	실천	빛의 유입방법, 효과, 의미, 공간 분위기, 건축적 체험 촉각, 후각, 청각 등 다감각 측면에서의 건축적 경험
운동	인식	움직임에 대한 건축가의 현상학적 인식
	실천	운동방향, 속도의 변화에 따른 건축적 체험 방식

3. 시자의 현상학적 건축 기반

3.1. 시자의 현상학적 건축 배경

(1) 개인적 배경

1933년 출생의 알바루 시자는 1949년 포르투 건축학교에 입학하는데, 당시 교장인 카를루스 라무스(Carlos Lamos)는 르코르뷔지에의 작업을 학교에 소개하여 큰 반향을 일으켰다.[6] 이후 알토와 라이트의 작업이 각각 포르투갈에 알려졌고, 시자는 특히 알토의 건축이 자신의 건축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언급한다.[7] 이외에도 시자는 오스카 니마이어를 비롯한 많은 근대 건축가들의 영향을 받았다.[8] 이러한 이유로 시자의 건축에는 근대건축의 원리와 특성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다른 한편, 대학 시절 지도교수였고 이후 동료가 된 페르난도 타보라(Fernando Távora)는 1958년까지 시자와 공동으로 작업했는데, 포르투갈 전통 건축의 중요성을 시자에게 알려주었다. 시자는 대학을 졸업하기 전인 1954년부터 자신의 설계사무소를 통해 주택을 설계, 완공시켰다. 이후 60여년에 걸친 실무 작업을 통해 근대 건축 원리의 연속선상에서 지역 건축의 영향을 받은 건축을 추구함으로써 서서히 현상학적 특성을 띠게 되었다.

(2) 지역적 배경

포르투갈은 1932년에서 1968년까지 군사독재를 겪었는데, 독재 정권은 '국가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건축'을 1950년대 후반 건축계에 강력히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포르투갈의 전통 건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고, 그 연구 결과 중 하나가 '건축에 있어서 지역과 대지의 중요성'이었다. 타보라가 이 연구의 핵심 인원이었으므로, 시자 역시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이후 포르투갈은 1974년 혁명으로 민정이양을 한 후 사회주의를 채택했다가, 1982년 다시 자본주의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격변으로 시자의 주요 작업은 포르투갈 내 포르투 지역으로 한정되었는데, 이는 군사독재 정권이 해외 작업뿐만 아니라 국내 작업에도 많은 제한을 두었기 때문이었다.[9] 역설적으로 이러한 제한은 시자로 하여금 근대건축의 교리에 지역적 특성이 더하여진 특유의 건축경향을 만들게 하였다. 하지만 시자 본인은 이 두 가지 경향 모두를 경계했는데, 지역성은 포르투갈의 경제적 여건과 제한 속에서 편의상의 이유로 전통적인 측면을 수용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아울러 근대건축의 영향 역시 부정했다.[10] 대신 이들 사이에서 자신의 건축을 찾으려는 노력을 지속해왔다고 밝힌다.[11] 이러한 이유로 포르투갈에서 시자의 노력은 지역건축과 근대건축의 관계에 집중되었고, 시자는 그 해결의 실마리를 장소의 자연적 환경 및 인문적 측면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고 밝힌다.[12]

(3) 시기별 건축 내용

시자의 건축은 처음부터 현상학적 특성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60여년의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서서히 현상학적 건축 특성을 나타낸다.

1960년대 시자의 작업은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지역적 배경으로 인하여 대체로 근대건축의 표현 요소에 지역적 건축이 갖는 장소적 특성과 구축방법이 혼합된 양상을 보여준다.

1970년대에는 지역주의 건축의 영향 하에서 이를 재구성하는 작업을 시도했는데, 주로 주택 설계를 중심으로 현실 사회가 요구하는 내용을 수용하고 이를 대지에 관계시키되 대신 건축의 자율적 측면을 중시하였다.[13]

1980년대에는 전 세계적으로 과거의 건축형태를 참조

6) 도미니크 마샤베르, 로랑 보두앙, 류수근 옮김, 알바루 시자와의 대화, 동녘, 2014, p.366

7) "시자 건축에는 알바 알토가 존재한다."고 평가받는다. Interview with Alvaro Siza, Porto, May 24, 1998, Philip Jodidio, Architecture is an Art, Alvaro Siza, Taschen, 1999, p.26 재인용

8) "오스카 니마이어와 르 꼬르비제도 영향을 미쳤다. 나의 작업이 알토의 영향을 받은 것은 확실하지만 또한 다른 많은 건축가들에게도 영향을 받아왔다. 하나의 영향에 고착된다면 잘 못하는 것이다." 라파엘 모네오, 이상현 외 역, 8인의 현대 건축가, 공간사, 2008, p.244

9) Philosophy, Theory and Practice Alvaro | October 6, 2011, http://alvarosizavieira.com/philosophy-theory-and-practice

10) "나에게 신합리주의나 바우하우스의 영향이 있다고 하지만, 그러한 방식으로 작업하지는 않았다." Interview with Alvaro Siza, Porto, May 24, 1998, Philip Jodidio, Architecture is an Art, Alvaro Siza, Taschen, 1999, p.18 재인용

11) "전통은 혁신에 대한 도전이다. 그것은 연속적으로 이식된 조직을 만들어왔다. 나는 보수주의자이고 전통주의자이다. 말하자면 나는 분쟁과 타협과 혼성화와 변형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다." Alvaro Siza, Writings on Architecture, ed. Antnio Angelillo, Skira, 1997, pp.204-205

12) Pedro de Llano and Carlos Castanheira eds. Álvaro Siza: Works and Projects (Centro Galego de Arte Contemporanea, 1995) p.36.

13) Nelson Motta, Between Populism and Dogma: Álvaro Siza's Third Way, (volume 5.1) of the journal Footprint, 2011, p.48

하는 이른바 포스트모던 건축이 성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건축은 근대 이전의 건축을 참조하지도 않았고, 고전 유형들을 다시 정교화하여 사용하지도 않았다.[14] 대신 추상적이고 실험적인 성격을 통하여 주위 환경에 대응하면서 금욕적이고 간소한 형태의 특징을 갖는 이른바 미니멀 건축의 성향을 보여준다.[15]

1990년대에도 미니멀 건축의 성격은 지속되었지만, 중반까지는 고전적 유형에도 관심을 보였다.[16] 특히 리스본 치아도(Chiado) 프로젝트에서는 지역의 특성 상 역사주의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반면 마리아 교회(1995)에서는 절제된 공간 구성에 다양한 자연광 유입을 통하여 변화를 시도하였다.

2000년대에는 구성적 능숙함과 아울러 실험적 작업이 시도되었다. 리베라 스포츠 센터는 빛과 물 그리고 공간의 감각적 결합을 보여주는 사례이며, 안양 파빌리온에서는 유기적 형태가 과감하게 시도되었다. 미메시스 미술관은 곡면과 정형의 역동적 공간성을 보여준다.

<그림 1> 시자 건축의 시기별 주요작품: 시계방향으로 좌측부터 보아노바 식당(1963), 보카주택(1973), 갈리시안 미술센터(1993), 슐레쉬세 아파트(1987), 마리아 교회(1995), 리베라 스포츠 센터(2005)

<표 3> 시자 건축의 시기별 내용

저자명	대표작과 주요 내용
1960년대	보아 노바 식당(58-63), 레싸 수영장(61-66), 코스타 주택(61-66) 지역성 반영, 대지의 장소성 중시, 다감각적 공간 구성
1970년대	카르도소 주택(71-73), 시자 주택(76-78), 보르헤스 은행(78-86) 지역적 특성 반영, 전통적 주택 형태
1980년대	슐레쉬세 아파트(1987), 유치원, 노인주택(80-88), 에보라 공동주택(77-95), 포르투 건축대학(87-93), 세투발 학교(86-94), 아베이로 도서관(88-95) 갈리시안 미술관(88-93) 구성적 형태, 곡면 도입, 다양한 빛의 연출,국제주의 양식 기반 일부 변형, 미니멀리스트 성향
1990년대	마리아 교회(90-96), 비트라 공장(91-94), 포르투갈 관(95-98), 알리칸테 대학 목사관(95-98), 보아비스타 건물(91-98), 세랄베스 재단(96-99) 백색 미니멀리스트 경향, 다양한 빛의 공간 연출
2000년대	리베라 스포츠 센터(03-06), 안양파빌리온(05-06), 미메시스 미술관(06-13), 아모레 퍼시픽 연구소(2010) 다양한 형태 및 공간구성, 부정형 구성, 직선과 곡선의 조합, 운동에 따른 다양한 공간감과 빛의 연출

3.2. 시자의 현상학적 건축에 대한 고려 사항

(1) 현상학자의 주요 주장과의 관계

시자는 철학이나 텍스트 중심의 이론을 기반으로 자신의 건축 사고를 발전시키기 보다는, 실무 작업을 통해 자신의 건축 존재성을 강화시켰기 때문에, 그의 건축에 대한 인식은 단편적 글이나 대화 등의 내용을 통해 추정할 수밖에 없다. 그의 건축관은 건축의 존재에 대한 관심을 나타낸다. "건축을 생각할 때, 내가 관심이 있는 한, 나는 주로 안정성, 조용함, 현존(presence)을 생각한다."[17]거나 혹은 "건물에는 시간이 담깁니다."[18]라는 그의 언급은 객관화되고 보편적인 건축 즉 철저히 타자화된 대상으로서의 건축이 아니라, 주체가 개입하고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건축을 말하며 이것은 현상학적 입장과 동일하다.[19] 따라서, 시자의 건축은 바로 순간이 갖는 가치를 인식하는 것이고, 또 다른 방식으로는 '사물의 존재'를 탐구하는 것이 된다.[20]

하이데거는 '건물은 곧 거주'라는 개념을 도출하여 인간과 장소를 연결시켰다. 즉 건축은 장소를 만들어내고 그 공간들을 연결함으로써 그 본질을 달성한다는 것이다.[21] 따라서, 건축을 '장소 만들기'로서 인식한다는 것은 바로 현상학적 접근으로 간주할 수 있다. 시자는 대지를 건축의 시작점으로 삼아 의미를 부여하고 이를 장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22]

메를로-퐁티의 주장에 따르면, 공간은 기하학적 공간 이전에 체험된 공간이 선행한다. 건축의 임무는 단지 기하학적 공간의 창출에만 주목하지 않고 보다 근원적인 공간인 일상적 체험 공간, 혹은 현상학적 공간의 창출에 주목해야 한다.[23] 시자의 작업은 항상 우리에게 예상치 못했고 다원화된 건축적 경험을 제공[24]하므로 그의 건축은 현상학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듯 시자는 비록 현상학자들의 이론을 직접적으로 인용하지는 않지만, 여러 측면에서 이들의 사고와의 연관성을 보여준다.

(2) 현상학적 건축가들과의 공통점과 차이점

일반적으로 시자의 건축은 지역의 컨텍스트와 역사, 문화를 반영한 '균형의 건축'으로서 알려져 있다.[25] 특히

14) Jorge Figueira, Alvaro Siza. Modern Reux, Being Precise, Being Happy, Alvaro Siza Modern Redux, Hatje Cantz, 2008, p.25
15) 라파엘 모네오, 이상현 외 역, 8인의 현대 건축가, 공간사, 2008, p.260
16) Jorge Figueira, op. cit., 2008, p.28
17) Ole Bouman, Roemer van Toorn, Desperately Seeking Siza, A conversation with Alvaro Siza, Conversation from The Invisible in Architecture, Academy Editions, London, 1994, p.7
18) 도미니크 마샤베르, 로랑 보두앙, 류수근 옮김, 알바루 시자와의 대화, 동녘, 2014, p.167
19) 박영욱, 필로아키텍처, 향연, 2009, p.61
20) 라파엘 모네오, 이상현 외 역, 8인의 현대 건축가, 공간사, 2008, p.250
21) 미트로비치, 이충호 옮김, 건축을 위한 철학, 컬처그라퍼, 2013, p.177
22) "주변의 지형을 올바로 읽고 난 다음에야 비로서 그 장소에 축적된 시간들까지 대지와 함께 조화롭게 연결시킨 새로운 장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도미니크 마샤베르, 로랑 보두앙, 류수근 옮김, 알바루 시자와의 대화, 동녘, 2014, p.217
23) 박영욱, 필로아키텍처, 향연, 2009, p.57
24) "확고한 용어로서,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 프로젝트는 내가 대지 자체에 대한 상황을 평가하는 순간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순간이 프로그램의 업무를 인식하고 시도하는 때이다." Ole Bouman, Roemer van Toorn, op. cit., p.3

작업 시 이루어지는 그의 수많은 스케치[26]는 각각의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공간 경험을 다루고 있다. 그 결과 알바루 시자의 작업에는 감각적으로 의도된 미묘한 빛의 효과가 있고, 이것은 사진에 의해서는 잘 설명될 수 없어서 방문객이 직접 몸으로 느껴야만 하는 것으로, 여기에 시자 건축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 받는다.[27]

이렇듯 시자의 건축은 체험을 위주로 고안되었으며 설계 자체도 이용자들이 어떻게 건축을 느낄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시자를 비롯하여 스티븐 홀, 페테르 춤터, 안도 타다오 등 건축가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특성은 지각, 특히 신체의 경험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서 특히 시각뿐만 아니라 촉각, 청각 등이 중시된다. 이들의 건축은 공간의 분위기를 사용자에게 어떻게 극적으로 전달할 것인가에 디자인 초점이 주어지기 때문에, 많은 경우 빛의 유입, 빛의 변화, 물의 강조, 공간의 중첩 등을 강조한다.

이러한 건축접근은 특정 용어, 개념을 설정하고 이를 건축화하려는 방식[28]과는 근본적인 차이[29]를 보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이들의 건축은 현상학적 건축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시자의 건축성향을 단순히 현상학적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기에는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우선, 시자 스스로가 자신의 건축이 어떠한 특정 성향으로 분류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물론, 강연이나 책을 통하여 자신의 건축을 명명하지도 않았다. 더군다나, 그의 사회참여적 측면과 미니멀 형태 구성 및 백색 선호 등은 다분히 근대건축의 특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평면 구성에서는 대칭과 비례를 중시하는 고전 유형을 사용하는 등 보수적 성격[30]을 띠기도 한다. 따라서 이렇듯 다양한 성격을 갖는 시자의 건축은 단순히 현상학적 건축으로 규정하기 보다는 좀 더 구체적 측면에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4. 시자 건축의 현상학적 특성

4.1. 대지 해석에 나타난 현상학적 건축특성

(1) 대지에 대한 현상학적 인식

시자의 건축에 있어서 대지는 건축의 출발점이다.[31] 이는 시자에게 있어서 프로젝트의 대지와 이와 연관된 자체의 특별한 문화 및 물리적 특징이 항상 건축의 시작점이 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건물이 놓이는 물리적 위치 이상을 의미한다. 알바루 시자는 "내가 관심이 있는 것은 아직 이름을 갖지 못한 새로운 발전을 기대하고 그곳을 지배하는 문화와 긴장과 갈등을 만들어내는 특정 장소의 잠재성을 탐구하는 프로젝트이다."[32] 라고 언급하여 하이데거 식의 '장소 개념'을 공유한다.

따라서, 각기 다른 대지 조건은 다른 방식의 해결책을 만들어낸다.[33] 그러한 이유로 조형적 측면에서 근대건축의 영향을 받아 장식이 없는 미니멀리스트의 성격을 보여주지만, 그의 건축에는 포르투갈의 지역적 특성이 반영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시자의 장소에 대한 하이데거식의 인식은 단순히 건축의 출발점이 아니라, 더 나아가 공간 구성, 재료 및 이들의 디테일까지 연결되는 건축 구현의 실질적인 내용[34]으로 전환된다는데 그 중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2) 대지의 건축화

현상학적 건축에서 대지의 건축화는 지형, 주변 환경, 접근로 등 대지가 갖는 물리적 성질과 주변 문맥을 건축물과 엮어 건축체험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초기 대표작인 레싸 수영장(1961-66)은 바닷가에 수영장을 두는 간단한 프로그램이지만, 직선의 해안 옹벽과 해변 갯바위라는 각기 다른 물리적 환경을 교묘하게 연결시킴으로써 사용자는 경사로를 따라 움직이면서 바다의 소리, 냄새, 풍광을 극적으로 체험하게 된다.

이와 달리 갈리시안 미술센터(1988-93)는 역사, 도시의 분위기 등 기존 도시 문맥을 건축에 반영한 결과이다. 시자는 주변의 도로, 정원, 수도원 등을 디자인에 연결시켰는데, 이는 장소에 축적된 사건들까지 대지와 조화롭게 연결시켜 새로운 장소를 만들어낸 사례이다.

이베레 카마라구 재단건물(1998-2008)은 대지 주변의 급 경사지가 갖는 지형을 건물로 끌어들인 경우로서 외부로 돌출된 경사로가 마치 모델의 콘투어처럼 강력한 외부 형태를 구성하는 동시에 내부까지 연결되어 극적인

25) Ibid., p.30

26) 시자는 '드로잉이 건축과 직접적인 관련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시야의 예리함을 발전시키는 데에는 좋다.'고 이야기 한다. Philip Jodidio, Architecture is an Art, Alvaro Siza, Taschen, 1999, p.8

27) Philip Jodidio, Architecture is an Art, Alvaro Siza, Taschen, 1999, p.14

28) 가장 대표적인 것이 명확한 건축원리로 도그마적 성격을 보여준 근대건축이며, 해체주의 건축 역시 이 범주에 속한다.

29) "그는 예상치 못한 해결로 이르게 되는 것을 선호하고 놀라움을 즐긴다. 그는 우연적인 것이 다중적이고, 이중적인 가치가 있는 것을 암시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라파엘 모네오, 이상현 외 역, 8인의 현대 건축가, 공간사, 2008, p.253

30) "저는 그 작업을 하면서 보수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유형학적 연속성에 관한 생각에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도미니크 마샤베르, 로랑 보두앙, 류수근 옮김, 알바루 시자와의 대화, 동녘, 2014, p.253

31) "나는 사이트를 방문할 때부터 디자인을 시작한다."라파엘 모네오, 이상현 외 역, 8인의 현대 건축가, 공간사, 2008, p.251

32) Ole Bouman, Roemer van Toorn, op. cit., p.3

33) "나에게 프로젝트의 건축적 표현은 어디서 이루어지는가에 많이 의존합니다. 바다 주변의 프로젝트는 산 속의 프로젝트와 같을 수 없습니다. 나는 내가 짓는 건물의 컨텍스트, 역사를 매우 의식합니다." Alvaro Siza interviewed by Rodrigo Fadel, Luminous, 2009/4 December, p.8

34) "장소에 대한 개념은...멀리는 재료들 사이를 이어 주는 디테일까지 공간들 사이에 얽힌 관계에서도 중요합니다." 도미니크 마샤베르, 로랑 보두앙, 류수근 옮김, 알바루 시자와의 대화, 동녘, 2014, p.47

공간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대지 해석은 디자인에 많은 영향을 미쳤고, 특히 건축 체험에 있어서 중심적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현상학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 레싸 수영장, 갈리시아 미술관, 이베레 카마라구 재단 건물

4.2. 감각 체험에 나타난 현상학적 특성

(1) 감각에 대한 현상학적 인식

건축에서 빛은 사회문화적 요소와 조형성을 통해 의미를 형성하며, 건축가는 빛을 다루어 공간, 경계, 방향을 보여준다. 결국 건축에서 빛은 건축가가 의도한 체험을 유발하기 위해 구성하는 현상적 지각 요소라고도 할 수 있다.[35] 시자에게 있어서 빛은 공간을 인식하기 위한 첫 번째 요소이므로 이를 작업에 담기위해 노력한다.[36] "빛의 연구는 단순한 조명 연구가 아니고, 그 이상의 것이라 할 수 있다. 빛과 물체는 공존하고 어느 곳이든 고유의 빛이 있다."[37] 그 결과 빛의 경험은 공간과 분리되지 않고 종합되어 나타난다.[38]

현상학적 건축가들이 시각이외의 감각을 중시하는 것은, 건축이 단순한 바라봄의 대상이 아니라 그 속에서 몸으로 느끼는 체험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시자 또한, "건축을 고려할 때...중요한 것은 눈을 감고 여러 가지 감각을 따르면서 건물 안을 돌아다녀 보는 거죠."[39]라고 언급하여, 시각 이외의 모든 감각을 통해 건축을 경험해야 함을 주장한다. 또한 "대지에서 건물을 분리해내는 그 틈에는 감각을 통해 알 수 있는 현실, 즉 촉각적인 두께가 존재한다."[40]고 언급하여, 시각이외의 감각 역시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건물에는 시간이 담깁니다. 우리는 이것을 고려해야 합니다."[41]라고 주장하여, 그가 주장하는 공간이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공간이 아니라 시간에 따라 변화하며 이를 수용하는 현실의 공간 즉 체험의 공간임을 나타낸다.

(2) 감각의 건축적 체험

빛과 공간의 감각적 통합은 자연광을 중시하는 시자에게 있어서는 채광 및 자연 조명의 형식으로 나타난다. 특히 자연광의 통로인 이중 천장을 사용하여 직선 위주의 기하학적 평면과는 달리 역동적이고 때로 곡선의 유연함을 보여주는 형태의 천장을 덧붙임으로써 공간의 깊이와 다양화 그리고 자연광의 변화를 통한 극적인 공간 경험을 제안한다.[42] 세랄베스 미술관(1991-99)에서는 마치 탁자를 엎어 놓은 듯한 천장을 사용하여 3차원의 공간구성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 미메미스 미술관(2008-13)은 곡선의 이중 천장을 통해 작품 감상을 위한 자연광 유입과 아울러 역동적인 공간감을 체험시킨다.

색채와 관련하여, 스티븐 홀이 다양하고 원색적인 색을 즐겨 사용하는 것과 달리, 시자는 남부 유럽의 환경적 특성을 반영하여 주로 백색을 사용한다고 설명한다.[43] 벽돌, 석재, 노출 콘크리트 등 다양한 외피 재료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내부 공간에는 백색의 평활면을 사용함으로써 재질, 색채를 강조하지 않는다.[44] 그러나 사용 용도에 따라서는 사용 재료를 다루는 방식이나 디테일을 통해 이를 촉각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만든다. 서펜틴 파빌리온(2009)에서는 목재를 이용하여 대지와의 만남, 각 부재의 연결 등에서 목재의 특성을 살린 디테일을 보여준다. 이렇듯 시자는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촉각을 비롯한 다감각적 부분을 자신의 건축에 반영한다.

<그림 3> 세랄베스 미술관, 서펜틴 파빌리온, 미메시스 미술관

35) 곽승, 김현섭, 알바루 시자의 아베이로 도서관에 나타난 빛에 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제26권, 2010.11, p.46

36) "저는 빛을 주제로 작업합니다. 즉 빛에 관한 제 경험을 작업에 남기려고 합니다." 도미니크 마샤베르, 로랑 보두앙, 류수근 옮김, 알바루 시자와의 대화, 동녘, 2014, p.169

37) Christian Nober-Schulz, Introduction, Hanry Plummer, Poetics of Light, A+U, 1987, p.4

38) "빛은 공간들로부터 결코 떼어낼 수 없고 이 모든 경험이 그런 빛과 밀접하게 이어져 있습니다." 도미니크 마샤베르, 로랑 보두앙, 류수근 옮김, 알바루 시자와의 대화, 동녘, 2014, p.119

39) Ibid., p.208

40) Ibid., p.31

41) Ibid., p.167

42) "천장시스템의 원칙을 바꾸어 공간적이고 형태적인 제안, 어쩌면 조금 과격한 제안을 하려 했습니다." 도미니크 마샤베르, 로랑 보두앙, 류수근 옮김, 알바루 시자와의 대화, 동녘, 2014, p.199

43) "많은 수의 백색 건물을 만들었지만, 녹색, 청색, 적색 그리고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색채의 건물도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 주변 환경에 가장 좋은 가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포르투갈 남부에서는... 일반적으로 백색인데 해의 영향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어 실내에 좋기 때문입니다." Alvaro Siza interviewed by Rodrigo Fadel, Luminous, 2009/4 December, p.9

44) "색깔을 다루는 것은 솔직히 어렵죠. 돌, 벽돌 등의 자연소재를 쓸 때 재료 자체의 색깔과 재질감의 조합문제도 있습니다." 도미니크 마샤베르, 로랑 보두앙, 류수근 옮김, 알바루 시자와의 대화, 동녘, 2014, p.117

4.3. 움직임에 의한 현상학적 특성

(1) 움직임에 대한 현상학적 인식

움직임을 현상학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단지 방과 방 혹은 내외부 공간을 연결하는 기능적 측면 이외에 움직임을 통한 건축적 체험을 중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자는 자신의 건축 특히 후기 작업에서 드러나는 공간 구성의 역동적인 성격에 대해 이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거나 강조하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갈리시안 미술관을 설명함에 있어 "위로 올라가는 움직임은 옆에 있는 건물의 무게와 관계를 맺는다."[45]고 언급하여 그가 의도하는 움직임은 물리적, 기능적 측면 이외에 주변의 요소와 그 영향을 통해 만들어지는 건축적 체험에 관련되어 있음을 알려준다.

(2) 움직임을 이용한 건축 체험

움직임을 통한 건축적 체험은 계단과 램프와 같은 수직 동선과 움직임이 이루어지는 수평 공간의 너비, 높이, 방향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그렇지만, 알바루 시자는 의도적으로 과도한 움직임을 만들지 않고, 대신 절제된 그러나 다양한 공간을 체험할 수 있는 움직임을 연출해 낸다. 이러한 특성은 그의 건축 중에서 동선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미술관과 박물관 건축에서 잘 드러난다.

시자의 90년대 미술관 대부분은 단순한 직사각형 평면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공간체험을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었던 것은 창문을 포함한 개구부들이 만들어내는 공간의 깊이와 천정을 다양하게 구성하여 사용했기 때문이다. 계단과 같은 수직 동선과 이들의 결합은 움직임을 통한 공간 체험을 제공하는 단적인 예이다. 갈리시안 미술센터(1988-1993)의 계단실은 2개 층의 복도가 제공하는 2개의 시점과 벽면과 천장까지 뚫린 개구부와 빛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세랄베스 미술관은 커다란 측벽 창을 통한 빛의 유입과 천정 모서리를 따라 구성한 이중 천장을 통한 간접광의 효과로 정적인 공간에 변화를 준다.

2000년대의 미술관에서는 곡선이 적극적으로 도입되었는데, 이베레 카마라구 미술관(1998-2008)은 미술관의 주동선을 이루는 경사로를 적극적으로 내외부에 채용하여 직선과 곡선의 적층을 통해 역동적인 건축적 체험을 만들어낸다. 미메시스 미술관은 크지 않은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곡면의 내부 벽과 바닥면과 다른 이중의 천정면, 다양한 위치의 개구부 및 위치를 알 수 없는 빛의 유입 그리고 경사로 등을 통한 동선의 조합으로 몸으로 지각하는 공간 경험을 보여준다.

45) "경사로 위로 점점 내려오는 처마 선에 의해 움직임은 한층 더욱 강조되었고 올라가면서 조금씩 건물의 안으로 눈길이 가게됩니다." 도미니크 마샤베르, 로랑 보두앙, 류수근 옮김, 알바루 시자와의 대화, 동녘, 2014, p.203

<그림 4> 갈리시안 미술센터, 세랄베스 미술관, 이베레 카마라구 미술관, 미메시스 미술관

이상의 분석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 시자 건축의 현상학적 건축특성

내용		주요관련 사항
대지	인식	건축의 출발점, 물리적 위치 이상의 대지 존재 인식 장소의 잠재성 탐구, 공간, 재료, 결합까지 확대
	실천	대지의 지형, 자연적 조건을 활용한 건축체험, 기존 도시의 축과 주변 건축물 참조, 지형의 건물 유입
감각	인식	물체와 공존요소로서 빛 인식, 감각을 통한 건축 경험 강조,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체험 공간 인식
	실천	자연광 유입을 위한 이중 천장 설치, 백색위주의 색채사용, 재료 사용 방식과 디테일을 통한 촉각 강조
운동	인식	기능이외의 체험적 요소로서 인식
	실천	개구부와 빛을 통합한 수직계단 설치, 이중 천장을 이용한 공간의 역동성 강조, 곡면 경사로 설치로 운동감 고양

4.4. 시자의 현상학적 건축이 갖는 의의와 한계

(1) 점진적 전개

2000년대 이후 시자의 건축은 명백하게 현상학적 건축의 특성을 보여준다. 특정 이론에 구속되지 않기를 원했던 시자의 바램대로 60여년에 걸친 그의 건축은 시기별로 각각의 서로 다른 특징을 보여주면서 전개되었다. 지역적 특성이 많이 반영되었던 초기 건축에서는 대지에 대한 고려가 돋보이며, 지역 건축과 관련된 재료의 적절한 사용과 결합방식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90년대까지는 근대건축의 영향이 반영된 미니멀 형태 구성이 주를 이루지만, 다양한 개구부 형성과 자연광 유입에 대한 구체적 연구가 나타난다. 2000년대 이후 건축에서는 직선의 기하학적 형태에 곡면의 유기적 형상이 조합되면서, 좀 더 감각적이고 역동적인 공간 체험을 제공한다. 이렇듯 시자의 건축은 점진적 전개를 통해서 대지에서 움직임까지 현상학적 건축의 내용으로 종합되었다.

(2) 빛과 공간의 극적 체험

스티븐 홀은 메를로-퐁티의 현상학 이론을 기반으로 건축적으로 적용 가능한 기준을 만들어 자신의 건축에 적용해왔는데, 이른바 '다시점 공간, 현상학적 렌즈로서의 물, 밤의 공간성, 음영의 속도 등'이 그 주요 내용이다. 이와 달리, 알바루 시자는 별도의 현상학 이론을 인용함 없이도 자신의 건축을 발전시켰는데, 그의 건축에 있어서는 빛과 공간의 극적인 연출이 가장 현저한 현상학적 건축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작

업인 이베레 카마라구 미술관, 안양 파빌리온(알바루 시자홀), 미메시스 미술관 등에 이르면, 곡선의 도입이 빈번해지고, 과감한 선과 면들이 내부에 도입되면서 이전의 정형적 건축공간을 벗어나 역동적이고 극적인 공간 체험을 보여주게 된다. 특히 자연광에 대한 강조 때문에 이용자는 시간별, 계절별로 변화하는 빛의 특성을 공간과 같이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아래 사진에서 보듯이 결과적으로 시자의 미술관 내부는 홀의 미술관이 보여주는 현상학적 건축 특성과 거의 같은 공통점을 보이게 된다.

<그림 5> 미메시스 미술관과 카이즈마 미술관, 미메시스 미술관과 허닝 미술관 내부 모습

(3) 부분적 한계

시자 자신이 건축에 있어서 이론의 필요성을 스스로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46], 스스로의 건축을 발전시킬 특정 이론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의 건축이 갖는 부분적 한계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시자 자신이 글보다는 스케치나 도면을, 이론보다는 실무 자체를 중시하고, 스스로의 건축을 특정 건축 성향으로 규정하지 않고 작업을 해나갔기 때문에, 다른 건축가와 이론가들이 제시한 현상학적 건축이론을 기준으로 삼아 시자의 건축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스티븐 홀 등이 이론과 실무를 병행하여 자신들의 현상학적 건축을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정립해 나갔던 것에 반해, 알바루 시자는 오로지 오랜 기간에 걸친 실제 작업을 통해 결과적으로 유사한 성격의 건축에 도달하게 되었다. 이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전적으로 방법상의 문제인 동시에 개인적 스타일에 기인한 결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단지 급변하는 현대사회 상황 때문에, 실무를 통해 스스로의 건축을 점진적으로 계발하는 시자의 작업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한 것이 되기 어렵다는 점은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시자의 경우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상학적 건축은 각기 다른 방법에 의해 구현될 수 있는 바, 이는 현상학적 건축이 '건축의 본질과 체험을 중시하는 건축 고유의 오래된 전통' 하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5. 결론

이상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알바루 시자가 보여주는 현상학적 건축 특성은 포르투갈의 지역 건축가라는 개인적 배경 하에 건축의 본질을 추구한 접근방식이 결합된 결과이다.

둘째, 대지를 건축의 출발점으로 삼아, 대지의 장소성과 건축의 존재를 강조하는 시자의 건축은, 장소를 중심으로 거주의 의미를 강조한 하이데거의 현상학적 주장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셋째, 시자는 근대건축의 대표적 특징인 백색의 평활한 면이 만들어내는 절제미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지만, 초기의 정형적 구성을 벗어나 곡면과 예각 등을 사용한 역동적이고 극적인 공간 체험을 제공한다.

넷째, 시자의 미술관 건축은 시자 특유의 현상학적 건축특성을 잘 보여주는데, 이는 다양한 구성의 이중천장, 곡면의 내벽 및 다양한 형식의 개구부를 통한 적극적인 자연광 유입을 통해 공간과 빛이 조합된 결과로서, 다양하고 극적인 공간 체험을 제공한다.

이렇듯, 시자의 건축에서 나타나는 현상학적 건축 특성은 명확한 건축 이론에 근거한 것은 아니지만, 건축의 본질에 대한 고려와 건축 체험을 중시한 지속적인 작업이 축적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El Croquis 68/69 + 95 Alvaro Siza, El Croquis, 2010
2. Holl, Steven, Pallasmaa, Juhani, Perez-Gomez, Alberto, Questions of Perception; Phenomenology of Architecture, William Stout Publishers, 2006
3. Jodidio,Philip, Alvaro Siza: Complete Works 1954-2012, Taschen, 2013
4. Machabert, Dominique, 류수근 옮김, 알바루 시자와의 대화, 동녘, 2014
5. Mitrovic, 이충호 옮김, 건축을 위한 철학, 컬처그라퍼, 2013
6. Moneo, Raphael, 이상현 외 역, 8인의 현대 건축가, 공간사, 2008
7. Motta, Nelson, Between Populism and Dogma: Álvaro Siza's Third Way, (volume 5.1) of the journal Footprint, 2011
8. Pallasmaa, Juani, The Eyes of the Skin, Wiley, 2008
9. Pallasmaa, Juani, The Thinking Hand, Wiley, 2009
10. Shirazi, Mohammadreza, Architectural Theory and Practice, and the Question of Phenomenology, Brandenburgischen Technischen Universität, 2009
11. Siza, Alvaro: The Function of Beauty, Phaidon Press, 2009
12. Siza, Alvaro, Alvaro Siza interviewed by Rodrigo Fadel, Luminous, 2009/4 December
13. 길성호, 현대건축과 수용미학, 스페이스타임, 2003
14. 박영욱, 필로아키텍쳐, 향연, 2009
15. 이종관, 공간의 현상학, 풍경 그리고 건축,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2
16. 곽승·김현섭, 알바로 시자의 아베이로 도서관에 나타난 빛에 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제26권, 2010.11

[논문접수 : 2014 04. 30]
[1차 심사 : 2014. 05. 20]
[게재확정 : 2014. 06. 13]

46) 도미니크 마샤베르, 로랑 보두앙, 류수근 옮김, 알바루 시자와의 대화, 동녘, 2014, p.227